

能動的 人間의 探究(3)

哲學과文學의 接觸面

金午星

만일 哲學的 探究에 依하여 人間性의 內面에 能動性이 潛在해 잇스며 그러므로 能動的인 行動이 可能하다면 藝術家는 可能的인 人間의 能動性에 依하여 能動的으로 行動하는 人間타입을 創造할 수 잇는 것이다. “可能性에 依한 創造” 이것은 웨스톱 등이 말하는 바 “虛無로부터의 創造”를 意味함은 決코 아니다. 可能性은 非現實的인 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다. 人間性에 잇서 可能的인 것은 現實的인 것보담 더-眞實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웨-그러나하면 이미 所與된 現實的인 것은 낡거나 消滅될 運命을 가졌스나 可能的인 것은 압호로 반듯이 實現될것이며 또 存續될 것임으로써이다.

哲學과 文學의 協力 問題에 對하여 아래와 가튼 理由로 反對할 사람이 잇슬는지 물은다. “哲學이 人間타입을 創造치 못하고 文學이 人間性의 內面的 本質을 認識치 못한다는 것은 너의 獨斷에 지내지 안는다. 웨-그러나하면 哲學者인 프라-톤의 敘述에 낯아난『스고라테스』나 니-체의 敘述에 낯아난『짜라투스트라』가 뚜렷한 人間타입의 創造인 것이며 藝術的 創作인 피-테의 『파우스트』 그 박게 偉大한 藝術家들의 作品이 人間性의 內面을 餘地업시 暴露하고 잇지 안느냐고 그렀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서서는 안될 것은 文學的 形式을 빌지 안코는 哲學은 人間타입을 創造할 수 업으며 哲學的 認識으로 그 內容을 貫徹하지 안고는 文學은 人間性의 內的 本質을 把握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프라-톤의 對話篇(소고라테스의 性格을 表現한)이나 니-체의 『짜라투스트라』가 文學의 形式을 빌은 哲學 즉 文學的 哲學이라면 피-테의 『파우스트』는 哲學의 內容을 가진 文學 즉 哲學的 文學이라 할 것이다. 프라-톤, 니-체, 피-테 그 박게 실릴 발작크, 톨스토이, 엡스키-등의 作品이 우리에게 特別한 感化와 影響을 주고 잇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업시 哲學과 文學의 서로 協力 乃至 結合한 까닭일것이다. 발작고는 自己 小說의 어느 部分(그 代表는 『絶對의 探究』·『알수업는 探作』등을 들 수 잇다)을 哲學的

小説이라고 하였다. 발작크 自身の 說明에 依하면 哲學的 小説은 人間情勢의 原因과 人間の 行爲와 그것을 나하노흔 觀念과의 關係를 措出하는 것이라 하였다. 나는 이러한 哲學的 小説이 지금 우리에게 可能하겠는가 잘 알 수 없다. 오직 今日의 純正哲學이 技巧에만 흘르는 傾向에 鑑하여 哲學的 文學, 文學的 哲學이 待望된다는 것만 말하고 싶다. 能動的 人間타입이 이러한 偉大的 哲學的 文學 또는 文學的 哲學에서만 完美하게 探究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才能 問題이다. 우리는 그것을 待望할 뿐이요, 억지로 만드려낼 수는 없다. 우리는 오직 哲學的 認識이 生産性, 創造性을 獲得하며 文學的 創作이 眞實性, 迫眞力을 確保하기 爲하여야는 哲學과 文學은 協力 乃至 結合하지 안하면 안된다는대 力點을 두어 主張할 뿐이다. 페르랑데스는 認識이 哲學보담 創造의 哲學을 要望하였다. 나는 오히려 認識과 創造를 統一한 哲學을 要求하고 싶다. 그리하는대서만 哲學은 概念遊戲나 幻想的, 曲藝的, 建設的인 哲學이 될 수 잇을 것이다.

以上の 敘述은 哲學과 文學과의 協力 問題를 單히 外部的으로 考察한대 지 내지 안는다하나 오늘의 文化現象은 우리로 하여금 이 問題를 좀더 內面的으로 把握할 必要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깊은 論究를 이곳서 遂行하기는 極難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달은 機會에 이 問題를 再論할 것을 約束한다.

三

나는 以上에서 能動的 人間타입의 探究는 哲學과 文學과의 協力 乃至 結合에서만 完美하게 遂行될 수 잇음을 말하였다. 이제 나는 文學과의 協力을 前提로 하면서 哲學의 側面에서 人間の 能動性을 若干 차져보려고 한다.

人間の 能動性을 探究하려면 우리는 먼저 人間을 主體的으로 把握하지 안하면 안된다. 單純한 客觀的 立場에서는 人間の 能動性은 容認되지 안는다. 하나 이러한 客觀主義에 잇서는 自然은 잇을 수 잇스나 歷史 또는 社會는 생각할 수 업는 것이다. 웨-그러나하면 歷史的 社會는 人間이 지여노흔 것이며 또 不斷히 지으면서 그 속에 棲息하는 人間 世界이며 人間的인 世界임으로써이다.

人間은 人間 以外的 모든 存在와 自己를 分難 시켜가지고 그것과 對立함으로써 人間の 모든 存在에 對한 主體性을 確保한다. 그것은 人間은 항상 人間 以外的 모든 存在와 反抗競爭하지 안할 수 업는 位置에서 잇는 까닭이다. 즉 人間은 人間 以外的 모든 存在를 征服하며 變革시켜 自己의 自身에 歸屬 시킴으로서만 그 生存을 維持할 수 잇는 까닭이다. 人間은 自己 以外的 客觀的 存在와 抗爭함으로써 客觀을 純히 變化시킬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客觀

세계의 發展을 圖謀하는 同時에 다른 한편으로는 人間 自己의 發展과 創造
를 圖謀하는 行爲가 되는 것이다.